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 Praise & Worship	Praise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Doxology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Lheem, Heungsoo
*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Congregation
Offering Prayer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15:16-39 Pastor
Anthem	Jerusalem Choir
* Sermon	"Art of the Cross" Pastor
* Hymn	14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Art of the Cross “

Perhaps the most common theme in arts and popular culture is that of the cross, signifying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Whether in the form of a crucifix (a cross with the hanging figure of Christ) or an empty cross (which signifies both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the cross has been an inspiration to many artists throughout the ages. The historic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agony and suffering of Christ on the cross provide a most dramatic context for meaning and symbolism in arts. The scenario is as follows: The most holy and sinless man suffers the most barbaric way of death on the cross² which is reserved for the worst criminals in those days. He is the victim of a dark conspiracy of those institutional (religious, political, military) powers, as well as demonic forces. This view is, then, countered by the presence of those devoted to him³ the mournful women (including his mother Mary) and the consoling angelic company. Despite these human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demonic and angelic elements, the most significant symbolism, however, is reserved for the theological mysticism of the cross. The cross signifies the most profound expression of the sacrificial love of God: the self-emptying (kenosis) of Christ, the bearing of the sins of humanity, the agony of separation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suffering of God in general. Thus, the cross becomes the crux in which the deepest theological conceptualization meets the highest artistic expressions.

Announcements

-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 Please make your prayer requests known to us by submitting them in the heart shaped prayer box located at the rear. We will be praying for you.
-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 9:30 am (Room 104) -Leadership and Intercession (led by Pastor Daniel)
 - 12:00 pm (Room 104) - Children`s Sunday School Class (led by Cing and Dashka)
 - 1:00 pm (Room 604) - Youth Bible Study (led by Hyejin Ryoo)
 - 1:00 pm (Room 104) - “Christian Doctrine” Study (led by Jimmy Eppley)
 - 1:00 pm (2nd floor) - “Christian Character” Study (led by Vung Zam Cing)
 - 1:00 pm (9th floor) - Mongolian Bible Study (led by Amaraa and Dashka)
 - 3:30 pm (Room 104) - Mongolian Korean Study (led by Kaori)
- Saturday English Class (Room 606), alternating between 12:30 pm and 6:30 pm (led by Richard Hammett and Jimmy Eppley)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III,IV 층
	II 부 예 배 (영여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II,I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예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부(오후반)		오후 3시30분	702 호
꿈나무영여성품스쿨		오후 4시	701 호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새가족부	원입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새가족현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할 장석남 황 광 유문전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재라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천세중	협동목사 김철홍 원종전 김다니엘	
전도사(교육담당) 구본태 장재원 정태은 이진광 고수은 , Vung Zam Cing		
선 고 사 강야구김주현, 김요셉-조세돈, 김모세-이한나, 김원희(동아사이아), 전광희(아시아), 이은주 강해정(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태,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훈-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영-김희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정상진-홍승인(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재라(체코), 이재훈-박재원(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형태(말라위), 김영호-서형정(러시아), 김민서-현혜미(아르헨티나), 홍남자-김민규(우크라이나), 허창범-한미순(일본), 김광중-최치라(동남아시아), 김낙자, 오정비(케냐), 김태식, 윤용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용중-배순미(타이완동자), 탕, 켄, 오 카, 마이, 랑, 사무도, 러이, 난, 샹, 세우, 카를, 칼, 흐라, 리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거렐(미얀마) 필리몬, 프로산토, 수래시, 수바쓰, 이경열, 알로롱, 비시 누비노, 보디소트, 린들, 수완준(방글라데시)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좇 육

Lee Jong-Yun, Ph. D., D.D., D. D.

답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성령강림의 세 가지 현상들”
 (“Three Phenomenons of the Pentecost “)

■ 행 2:1-13

성령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중요한 사건이자 우리에게는 너무도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강림 사건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 세 가지의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성경적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1.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구약시대부터 오순절까지, 성령님은 간헐적으로 간간히, 어떤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성령님께서 교회 위에, 또한 각 사람 위에, 보편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오신 성령님의 특징은 ‘능력, 권능, 파워’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두나미스, 다이나미츠’와 같은 엄청난 힘과 능력입니다. 그런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 능력의 성령님을 느꼈을 것입니다.

2. 불의 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임

구약 성경에 보면,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는 항상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소리로, 마치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는 묘사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 또한 볼 수 있게 임하신 것입니다.

3. 방언

사서령강림의 시간에 있었던 방언은 사도 바울이 (고전.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방언입니다. 지금 성령강림의 시간에 있었던 방언은, 하나의 다른 방언으로 인해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듣게 된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가 언제부터 혼잡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의 말속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딸기 시작했던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언어가 혼잡해진 바벨탑의 저주가 완전히 역전되어 오직 하나의 언어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언어의 혼잡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이제 거의 모든 민족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복음을 듣고, 모국어로 된 성경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강림의 세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세 가지 현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해 왔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룬 ‘성령세대’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 충만’의 삶을 지속적으로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가장 아름다운 나만의 색깔을 회복하고, 삶에서 사랑, 화평,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은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복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